

# 일제강점기 대구의 토목건축청부업자에 관한 연구

이진현\*

(대구광역시 관광문화재과 학예연구사)

주제어 : 대구, 건축토목청부업자, 일제강점기, 근대건축

## 1. 서론

###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대구 1905년 경부선의 개통과 1906년 대구읍성의 훼손을 시작으로 1920~30년대를 거치면서 빠른 속도로 식민지적 근대도시로 탈바꿈하기 시작했다. 근대 건축물의 등장과 도시 계획에 따른 가로정비, 상수도 설비 및 교량의 건설 등으로 도시의 경관은 급격히 변해갔으며 이러한 변화는 총독부, 경북도청, 대구부청 등 관공서들에 의한 공사의 결과물이 대부분이었다. 그중 일부는 지금까지 남아 근대문화유산으로 조사연구의 대상이 되고 있다.

대구지역의 근대건축과 관련한 연구는 대구시에서 2차례에 걸쳐 조사보고서<sup>1)</sup>를 발행하였으며, 윤재웅<sup>2)</sup>, 홍용석<sup>3)</sup> 등에 의해 진행되었으

나 연구자가 많지 않다. 이 중 홍용석은 대구부에 활동하던 상공인들의 활동과 도시변화에 주목하여 새로운 시각을 보여주었으나 대부분의 연구는 건축양식과 건축주, 설계자에 대한 연구가 주종을 이루며, 건축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토목건축청부업자(시공업자)<sup>4)</sup>에 대한 연구는 미진한 편이다.

일제강점기 청부업자에 대한 연구는 일찍이 김태중<sup>5)</sup>, 정기철<sup>6)</sup>, 김란기<sup>7)</sup>에 의해 진행되었으나 연구의 대부분이 경성부를 대상으로 하여 지방에서의 활동에 대한 연구가 미진하였으며,

3) 洪庸碩, 「商工業施設の分布からみた1876年から1945年までの韓國・大邱の都市変遷に關する研究」, 工學院大學 博士學位論文, 2007

4) 청부업자 중 토목·건축일에 종사하던 개인, 단체, 합자, 합명, 주식회사 등을 말한다. '토목건축청부업자'라는 용어는 『最近大邱要覽』, 『大邱商工人名簿』 등에 사용되고 있으며 그 외 청부업자로는 장례청부업자가 있었다.(이후 토목건축청부업자는 청부업자로 표기한다.)

5) 김태중, 「구한말 타지역건축소의 조직과 사업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2

6) 정기철, 「1876년부터 1948년까지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본 한국의 건축활동의 성격과 그 영향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8

7) 김란기, 「한국 근대화과정의 건축제도과 장인활동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9

\* 교신저자, 이메일: wine@korea.kr

이 연구는 2010년 대구경북연구원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음

1) 대구지할시, 『대구지역 근대건축물 조사보고서』, 1988 대구광역시, 『근대문화유산 목록화 조사보고서』, 2004

2) 윤재웅, 「대구지역 근대건축에 관한 연구」, 영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1

김정동<sup>8)</sup>에 의해 대구지역에서 활동하던 조선인 청부업자의 명단이 일부 조사된 정도이다. 그 후 이금도<sup>9)</sup>는 일제강점기 청부업자들에 대한 폭넓은 연구를 진행하였으나 대구와 관련해서는 대구담합사건의 진모를 밝히고 그 과정에 대한 연구만이 진행되어 실제 활동했던 청부업자들의 특성에 대해서는 연구된 바가 없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일제시기 대구에서 활동하던 건축청부업자들에 대한 시대적 활동 사항과 특성을 고찰하여 근대건축과 관련된 건축주, 설계자, 시공자의 상관관계를 연구하는데 대한 기본 자료가 되고자 한다.

### 1-2. 연구의 범위와 방법

연구의 범위는 1876~1945년 사이에 대구에 본점을 둔 근대적 회사형태(합명회사, 합자회사, 주식회사)의 청부업자를 주 대상으로 한다. 개인적으로 활동하던 청부업자와 지점형태로 대구에 진출했던 청부업자는 자료의 효율적인 분석을 위해 금번 연구범위에서는 제외하였으나 필요한 경우 명기하였다.

연구는 먼저 선행연구자의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東亞經濟時報社에서 1921년부터 1942년까지 격년으로 발간된 『朝鮮銀行會社組合要錄』을 분석하여 대구의 청부업자들의 시대적 변천사항에 대한 자료를 조사하였으며 조선총독부관보시스템(<http://gb.nl.go.kr>)과 『最近大邱要覽』, 『大邱案内』, 『慶北大鑑』, 『大邱商工人名簿』, 『大邱府史』 등 대구지역에서 간행된 책자를 통해 비교 분석하였다. 또한, 『昭和10年 朝鮮請負年鑑』을 통해 청부업자들의 수주현황 등을 분석하였으며 『在朝鮮內

地人 紳士明鑑』, 『朝鮮功勞者銘鑑』, 『慶北大鑑』 등을 통해 관련인물들의 이력을 조사하였다.

## 2. 청부업자의 시대적 변천<sup>10)</sup>

### 2-1. 일본인 청부업자의 진출

1878년 부산의 일본제일은행 공사를 시작으로 조선에 진출하게 된 일본인 청부업자는 1882년 임오군란 이전까지 大倉組, 協同組, 田中組 등이 진출하였으며, 1887년에는 慶田組가 들어오게 되었고 1897년 경인선철도 부설 공사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조선에 진출하게 되었다.<sup>11)</sup>

대구에는 1904년 경부선 속성건설을 위해 경부철도주식회사 남부공구 건설사무소가 설치되었는데, 이때부터 본격적인 일본인 청부업자의 진출이 이루어졌다.

1900년대 초 대구에서 활동하던 청부업자 중 대표적인 인물로는 吉田習孝, 桑野金太郎, 渡邊勘一, 中西彦三郎<sup>12)</sup>, 坂民次郎, 坂野民治郎, 山根吉太郎, 竹中要吉 등이 있었다. 吉田習孝는 1904년부터 건축청부업에 종사하였으며, 桑野金太郎은 1905년 東京의 星野組의 사원으로 조선에 와서 경부철도 건설공사청부에 종사하다 1909년 독립하여 개인경영을 하였다. 坂野民治郎은 1909년 4월 坂野組를 설립하여 활동하였으며 竹中要吉은 1913년부터 활동한 기록이 있다.<sup>13)</sup>

10) 2장의 내용은 『朝鮮銀行會社組合要錄』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이와 관련된 별도의 각주는 달지 않았다. 다만, 다른 자료에서 인용된 내용은 출처를 밝혔다.

11) 김란기, 앞의 논문, 21~22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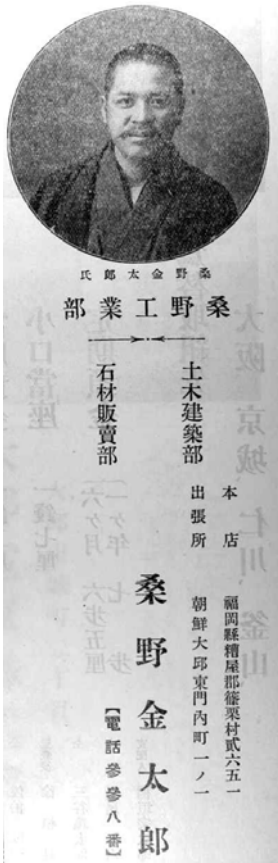
12) 1908년 10월부터 1909년 5월까지 대구경찰서 공사를 실시하였으며 공사금액은 14,890원이었다.(김태중, 앞의 논문, 20쪽)

13) 朝鮮經濟日報社, 『昭和10年 朝鮮請負年鑑』, 1935, 359~382쪽

8) 김정동, 「일제하 우리 건설업 분야의 상황에 관한 소고」, 건축·도시환경연구 제3집, 목원대학교 건축·도시연구센터, 1995

9) 이금도, 「조선총독부 건축기구의 건축사업과 일본인 청부업자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7

이들과 함께 선교사를 통해 대구에 온 중국인 姜義寬도 활발한 활동을 하였는데 이 시기 청부업자는 회사의 형태를 갖추지 않은 형태로 개인적으로 혹은 개인경영조직을 만들어 활동하였다.<sup>14)</sup>



<그림 1> 桑野金太郎  
(출처 : 朝鮮新聞社, 『鮮南發展史』, 39쪽, 1913)

## 2-2. 근대적 회사로의 이행

근대 회사의 형태를 갖춘 최초의 청부업자는 大邱起業(株)이다. 1916년 12월 29일 向坂庄吉에 의해 설립된 大邱起業(株)은 택지, 건물 매매, 대차, 토지건물에 대한 금전대부, 연

14) 이와 관련하여 1920년 발간된 『最近大邱要覽』에는 商工人名錄이 수록되어 있는데 그중 청부업자는 총 42명으로 모두 개인신분의 일본인으로 회사의 형태를 갖춘 것은 없다.(참고로 건축계료상 중에는 합자회사와 주식회사가 발견된다.)

부상환의 방법에 의한 매매양도의 목적으로 토지건물을 소유하는 일, 토지 및 건축공사의 청부 및 설계 감독을 하였다.

그 뒤를 이어 1920년 11월 8일에는 東洋企業(株)이 설립되었으며 물품 및 유가증권 매매 및 소개, 토지 건물 및 유가증권 담보대부, 재산관리, 정리 및 채권 징수, 토목건축 공사 청부 및 설계 감독, 각종 사업의 투자 경영, 각종 기업의 조사, 설계 소개를 하였다.

이들 업체는 부동산과 관련된 일과 함께 청부업을 병행하였으나 청부업의 비중이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sup>15)</sup>

토목건축청부업을 주력으로 하는 청부업자로는 1909년 9월 설립된 坂野組가 1921년 1월 14일 최초로 합자회사의 형태로 조직을 변경하였다. 坂野組(合資)의 대표사원은 坂野治郎이며 사원으로는 樫間六, 坂野喜一郎, 樫勝藏이 있었다. 1925년에는 창고 금융업무 및 그에 부대한 업무를 실시하면서 자본금을 100,000원으로 증액했다.



<그림 2> 立木要三  
(출처 : 達捨藏, 『慶北大鑑』, 447쪽, 1936)

15) 토목건축청부업이 아닌 토지매매업 및 금전대차업으로 분류되고 있다.

같은 해 7월 5일 와세다대학교 법대를 졸업하고 1906년 대구에 정착한 立木要三<sup>16)</sup>는 1921년 7월 5일 大八社(株)를 설립하였다.

1922년은 청부업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해였다. 당시 조선총독부는 일본의 신 회계법 및 회계규칙을 그대로 옮겨오면서 종전의 특명이나 수의계약을 폐지하고 일반경쟁 입찰을 원칙적으로 적용하였으며, 특히 경상북도를 중심으로 한 일부지역에서는 일반경쟁 입찰원칙이 두드러지게 시도되어 청부업자의 수가 급속도로 증가하게 되었다.<sup>17)</sup>

1923년에는 岩本組(合資), 1924년에는 紫垣組(合資)가 설립되었으며 1925년에는 桑野金太郎이 桑野工業部를 합자회사로 변경하였으며 世良組(合資), 三共組(合資)이 설립되었다. 1926년에는 福田工務所(合資), 1929년에는 東組(合資), 福岡組(合資)가 설립되었으며 森西平三朗은 1919년 설립된 岡本組와 1925년 설립된 森西組를 합병하여 자본금 50,000원의 岡本組(合資)를 설립하였는데 1932년에 자본금을 100,000원으로 증액하고 龍岡組(合資)로 회사명칭을 변경하였다.<sup>18)</sup>



<그림 3> 龍岡組(大邱府 北龍岡町 5)  
(출처 : 中濱 瀧・山重雄三郎, 『大邱案内』, 麗朗社, 173쪽, 1934)

16) 朝鮮公論社, 『在朝鮮內地人 紳士明鑑』, 1917, 210쪽

17) 이금도, 앞의 논문, 198쪽

18) 朝鮮經濟日報社, 앞의 책, 336쪽

### 2-3. 담합사건의 발생과 청부업자의 증가

청부업자의 증가는 자연스레 치열한 경쟁을 유발하였으며 자신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단체를 조직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1921년 6월 설립된 대구토목건축조합이다. 1925년 전조선의 토목업자대회를 개최하는 등<sup>19)</sup> 활발한 대외활동과 함께 1천원 이상의 공사에 대해서는 반드시 담합을 하게 하였으며 건축 관료와 청부업자, 사법경찰관 등은 서로 뇌물을 주고받았다.

특히 1929년 표면화된 담합사건은 1923년 이후부터 경상북도에서 시행한 토목, 건축공사의 대소를 막론하고 대부분 담합부정이 있었으며 이 사건에는 小原七郎(대구토목건축조합장), 岡本小三郎(龍岡組), 中西彦三郎(中西組), 竹中要吉(竹中組) 등 당시 활동하던 35명의 청부업자가 관련되어 있었다.<sup>20)</sup>

이를 계기로 일반경쟁은 수의계약으로 환원되었으며<sup>21)</sup> 청부업자의 업태와 내용이 급변하여 회사조직으로의 변경이 활발해졌는데<sup>22)</sup> 대구에서도 1930년부터 청부업자의 합자회사로

19) 朝鮮建築會, 『朝鮮と建築』, 제4집 제12호, 1925, 40쪽

20) 담합사건과 관련해서는 이금도, 앞의 논문, 264~266쪽에 상세히 연구되어 있다.

21) 종래 1만 圓 이상의 청부 공사에 있어서는 주로 會社法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指名競争制度를 채용해왔는데, 언제부터인지 談合金 분배를 목적으로 하는 입찰이 행해져왔다. 이번의 대구 사건을 발단으로 잇달아 각지의 사건이 적발되어 다수의 有罪者가 속출하여 미증유의 사건을 야기하기에 이르렀다. 이 때문에 종전의 지명경쟁에서는 도저히 정부가 기대하는 유리한 상대를 고를 수 없을 뿐 아니라 정부가 입은 불이익이 막대함을 감안해서, 당분간 시의적절한 조치로서 隨意契約에 의한 것을 가장 유리하다고 보는 상태이기 때문에, 會計法 제31조 제2항에 관한 關議 결정 사항 제2항 제5호를 적용하여 다년간의 경험을 가진 자산, 신용 모두 확실한 前記 청부인을 선정하고 수의계약을 체결하기로 한다. (중추원 조사자료, 隨意契約 인가 신청에 관한 건 司乙 제1535호)

22) 朝鮮經濟日報社, 앞의 책, 6쪽

의 변경이 대폭 증가했다.

1930년에는 尾州社(合資), 慶北工業(合資), 屋代組(合資), 東雲組(合資), 伸誠商會(合資), 三共商會(合資)가 변경되었으며 1931년에는 桑野金太郎, 渡邊勘一, 中西彦三郎의 현장대인에서 1925년 독립한 河崎豊<sup>23)</sup>이 河崎組(合資)를 설립하였고 같은 해 若狹岩市에 의해 若狹(合資)이 설립되었다.

三好組(合資)는 1932년에 三好勘次에 의해 설립되었으며 1934년에는 野間工業部(合資), 野間松四郎, 南武洋行(合資), 村本工務所(合資)가 설립되었다. 1935년도에는 山根組(合資), 岩井商會(合資), 牧野家具店(合資)이 설립되었으며 김천에 있던 三洲社(合資)가 대구로 이전하였다.

1936년에는 慶尙組(合資)가 설립되었으며 1937년에는 和上組(合資), 吉田組(合資)가 설립되었고 같은 해 李源璣에 의해 東亞興業(株)이 설립되었다. 1939년에는 李成永이 殖産興業(株)을 설립하였는데, 조선인에 의해 설립된 이 두 주식회사는 모두 토목건축청부업을

주로하고 있지는 않았다. 1939년 이후로는 회사조직으로의 변경, 설립기록은 조사되지 않았다.

1921년부터 1942년까지의 연도별 활동 청부업자의 수는 <그림 4>와 같은데 1935년 22개 업체를 정점으로 1940년까지 유지되다가 1942년에 이르러 15개 업체로 줄어들게 되었다.

#### 2-4. 해방후의 변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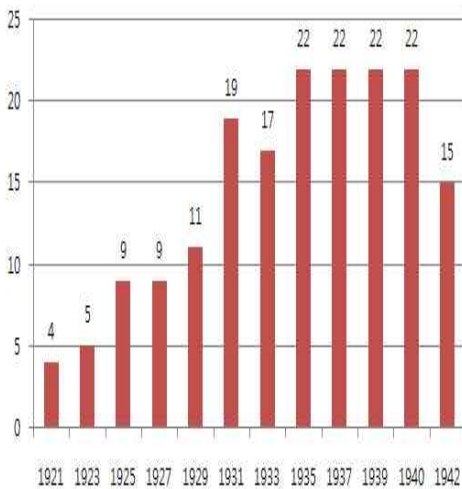
해방과 함께 일본인 청부업자는 모두 일본으로 돌아간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坂野組(合名), 龍岡組(合資), 屋代組(合資)는 미군정청에 의해 귀속되었는데 坂野組(合名)는 김상봉에게, 龍岡組(合資)는 조용권에게, 屋代組(合資)는 김기원에게 관리권이 넘어갔으며<sup>24)</sup>, 1949년까지도 회사명을 유지하였다.<sup>25)</sup>

### 3. 청부업자의 특징

#### 3-1. 설립형태

대구 초기 청부업자는 개인으로 활동하거나 혹은 組를 구성하여 활동하였으나 1920년도에 이르러 회계법 변화에 따라 기존 조직을 합명회사, 합자회사, 주식회사의 형태로 변경하게 되었다.

청부업자의 대부분은 합자회사였다. 합자회사는 유한책임사원과 무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되는데 사업의 경영은 무한책임사원이 하고, 유한책임사원은 자본을 제공하여 사업에서 생기는 이익의 분배에 참여한다. 이러한 합자회사는 설립 면에 있어서는 주식회사에 비해 수월하며, 합명회사에 비해 자본의 동원이 쉬운 이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합자회사는 27곳으로 청부업자의 79%를 차지하고 있었다.



<그림 4> 연도별 활동 청부업자 수

24) 대구시사편찬위원회, 『대구시사』 제3권, 1995, 721쪽

25) 朝鮮銀行調査部, 『經濟年鑑』, 1494, III-133쪽

23) 朝鮮經濟日報社, 위의 책, 359쪽

[표 1] 청부업자 현황

이름	대표	설립일	주소	자본금(원)	분류
大邱起業(株)	向坂庄吉	1916.12.29	북옥정 1	200,000	청부, 기타
東洋企業(株)	伊藤吉三郎	1920.01.08	원정 1정목 3	200,000	청부, 기타
坂野組(合名)	坂野治郎	1921.01.14	원정 2정목 35	50,000	청부, 건축재료
大八社(株)	立木要三	1921.07.05	동성정 2정목 162	100,000	청부, 기타
岩本組(合名)	富重常吉	1923.01.15	남용강정 3	50,000	청부
紫垣組(合資)	紫垣七郎	1924.09.01	원정 2정목 2	50,000	청부, 건축재료
三洲社(合資)	三島辰二	1925.02.27	행정 17	20,000	청부
桑野工業部(合資)	桑野金太郎	1925.05.21	촌상정 66	50,000	청부, 건축재료
世良組(合資)	世良朝吉	1925.06.01	행정 6-2	30,000	청부, 건축재료
三共組(合資)	西尾信助	1925.07.01	상정 68	2,000	청부
福田工務所(合資)	福田善三郎	1926.04.01	동운정 305	24,000	청부, 건축재료
東組(合資)	田村コト	1929.06.28	남용강정 11-3	50,000	청부
龍岡組(合資)	上高家房之助	1929.09.16	남용강정 11-2	50,000	청부
福岡組(合資)	福岡忠太郎	1929.11.07	동본정 69	50,000	청부
尾州社(合資)	田邊孝民	1930.02.28	원정 2정목 46	50,000	청부, 건축재료
慶北工業(合資)	吉田米吉	1930.04.01	영정 2	20,000	청부
屋代組(合資)	細井秀次	1930.05.02	행정 23	50,000	청부
東雲組(合資)	濱崎豊喜	1930.05.12	동운정 209	50,000	청부
仲誠商會(合資)	土肥勝次	1930.06.19	동성정 1정목 27	5,000	청부
三共商會(合資)	鄭道均	1930.11.11	전정 35	20,000	청부, 기타
河崎組(合資)	河崎豊	1931.01.07	삼립정 40	20,000	청부
若狹(合資)	若狹岩市	1931.07.01	금정 2정목 222	35,000	청부, 건축재료
三好組(合資)	三好勸次	1932.03.25	북용강정 2	5,000	청부
野間工業部(合資)	野間松四郎	1934.03.09	대화정 71	5,000	청부
南武洋行(合資)	南武武夫	1934.06.01	시장정 127	10,000	청부, 기타
村本工務所(合資)	村本茂房	1934.11.20	동운정 319	5,000	청부
山根組(合資)	山根竹雄	1935.08.28	원정 2정목 2	15,000	청부, 기타
岩井商會(合資)	岡田幸三郎	1935.10.15	전정 48	10,000	청부
牧野家具店(合資)	牧野善藏	1935.10.21	대화정 81	5,000	청부, 기타
慶尙組(合資)	南部武夫	1936.07.03	팔우정 29	10,000	청부
和上組(合資)	上田熊五郎	1937.01.24	동운정 202	50,000	청부
吉田組(合資)	吉田習孝	1937.01.30	북용강정 5	50,000	청부
東亞興業(株)*	李源璣	1937.09.05	덕산정 127-2	400,000	청부, 기타
殖産興業(株)	李成永	1939.07.29	동성정 3정목 12	50,000	청부, 기타

※ 『朝鮮銀行會社組合要錄』에서 발췌 정리

※ 대표 : 대표사원을 기준으로 『朝鮮銀行會社組合要錄』의 표기에 따름. 최초의 설립당시 기록된 대표자를 기록함

※ 설립일 : 설립일은 합병, 합자, 주식회사등으로 회사조직을 변경/ 설립한 날을 명기하고 있음

※ 분류 : (청부) 청부업만을 전담, (청부, 건축재료) 청부업과 건축재료 판매업을 병행, (청부, 기타) 청부업과 금융 등 기타 다른 사업을 병행

\* 東亞興業(株)의 자본금은 東亞日報(1937.11.3.)일자 기사 및 『朝鮮銀行會社組合要錄』에는 40만원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朝鮮總督府官報(1937.5.4.)에는 자본금 80만원으로 고시되어 있음

주식회사는 여러 사람으로부터 자본을 가장 쉽게 모을 수 있으며 그러한 자본을 바탕으로 경쟁력을 키울 수 있다. 이러한 주식회사는 모두 5곳으로 토목건축청부업과 더불어 금융, 부동산 매매 등을 함께 하는 곳이었다.

합명회사는 그 수가 가장 적으며 비교적 초기에만 설립되었다. 합명회사는 무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되며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직접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지는 인적 구성회사이다. 이러한 합명회사로는 坂野組(合名), 岩本組(合名)가 있는데 각각 1921, 1923년에 설립되었으며 그 이후로는 설립되지 않았다.

### 3-2. 업무분야

청부업자들을 업무분야별로 구분하면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 ① 청부업만 하는 경우
- ② 청부업과 건축재료 판매업을 함께 하는 경우
- ③ 청부업과 금융 등 기타 사업을 함께 하는 경우

총 34개의 업체 중 청부업만을 하는 업체는 18개, 건축재료판매를 함께 하는 업체는 7개였다. 토목건축 청부업과 기타 사업을 함께 하는 청부업체는 모두 9개였는데 그 사업분야는 [표 2]와 같다.

이중 6개의 청부업자가 부동산 매매를 함께 하고 있었으며 그중 5개 업체가 주식회사였는데 이는 자본을 바탕으로 토지개발(택지개발, 건설 분양) 전반에 대해 사업을 펼친 것이다.<sup>26)</sup>

### 3-3. 자본금의 규모

설립당시의 자본금을 통해 회사의 규모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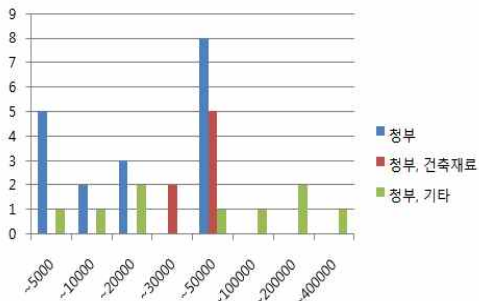
26) 정기철에 의하면 당시 토지개발수익률보다 토지소유수익률이 높았으며 부동산업의 건설업의 전화가능성이 극히 제한되었다.(정기철, 앞의 논문, 46쪽)

[표 2] 기타 사업 분야

청부업자	사업분야	비고
大邱起業(株)	택지, 건물 매매, 대차, 토지건물에 대한 금전대부, 연부상환방법에 의한 매매양도 목적으로 토지건물을 소유하는 일, 토목 및 건축공사의 청부 및 설계감독	
東洋企業(株)	물품 및 유가증권 매매, 토지 건물 및 유가증권 담보대부, 재산관리, 정리 및 채권징수 토목건축 공사청부 및 설계감독 각종사업의 투자경영, 기업의 조사설계	
大八社(株)	토지건물의 소유, 임대, 매매, 토지의 매축과 건축 청부업	
三共商會(合資)	유가증권 소유, 동산, 부동산, 일반상품의 매매 및 소유, 수익 및 토목건축 공사청부 및 재료 판매, 금전대차	
南武洋行(合資)	제재 지물, 토목건축청부	
山根組(合資)	토목건축 공사청부 및 노동력, 공사용 물품 공급, 기구재료의 임대 및 관계사업의 조사, 각종 부대업무	
牧野家具店(合資)	건축청부업, 서양, 일본산 가구 제작판매업	
東亞興業(株)	부동산의 매매 및 경영, 토목건축의 청부, 건축재료 연료 기타 일반상품의 매매, 보험업무의 대리, 기타 중개업	
殖産興業(株)	동산, 부동산 매매 대차 또는 금융, 생명, 화재보험 업무대리 및 위탁판매, 자동차에 의거한 운송업, 건축설계 및 공사청부 및 감독, 각종 부대업무	

살펴볼 수 있는데 청부업만을 하는 회사는 평균 자본금이 27,889원 이며 청부와 건축재료를 함께 하는 업자는 자본금은 평균 41,286원이다. 그리고 청부업과 기타 사업을 함께 하는 경우 평균 자본금은 111,111원으로 가장 많았다.

청부업자별 분포를 <그림 5>를 통해 살펴보면 35,000~50,000 사이가 14개 업체로 가장 많았으며 그다음이 5,000원 이하의 영세한 6개 업체가 있었으며 청부업과 건축재료를 취급하는 업체의 경우 50,000원이 넘는 자본금으로 설립한 회사는 없었다.<sup>27)</sup>



<그림 5> 업무분야별 자본금 규모

이에 반해 조선총독부 발주공사를 수주한 경성소재 유력 청부업자는 대부분 10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가지고 있었으며 일본에 본점을 두고 지점을 경성에 둔 清水組는 300만원의 자본금을, 大倉土木, 間組는 200만원의 자본금 가지고 있었다.<sup>28)</sup> 이를 통해 대구지역에서 활동하던 청부업자들은 경성에 비해 매우 영세하였음을 알 수 있다.

### 3-4. 설립자의 민족분포

설립자의 민족분포를 보면 31개 업체는 일본인에 의해 설립되었으며 3개의 업체만이 조선인에 의해 설립되었다.

1930년 鄭道均<sup>29)</sup>이 설립한 三共商會(合資)

는 1933년 4월 이전에 폐업하였으며 1937년 李源璣가 설립한 東亞興業(株)<sup>30)</sup>, 1939년 李成永이 설립한 殖産興業(株)는 해방시기까지 존속했던 것으로 추정되나 자료가 남아있지 않다. 이들 회사는 모두 건축청부업과 함께 금융, 부동산 등 다른 사업들을 병행하였으며 건축청부업의 비중이 높지 않았다. 이를 통해 공사 전반에 걸쳐 일본인 청부업자의 공사 독점이 심했던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 3-5. 영업실태

청부업자들의 영업실태에 대한 사항은 자료가 많이 남아있지 않다. 다만, 『昭和10年 朝鮮請負年鑑』을 통해 주요한 청부업자들의 공사실적을 파악할 수 있는데, 그 내용은 <그림 6>, [표 3]과 같다.

공사실적을 통해 살펴보면 龍岡組, 山根組, 桑野工業部, 坂野組, 屋代組, 東洋企業의 수주액이 전체의 89%를 차지하고 있으며 나머지 청부업자들이 남은 11%를 두고 치열하게 경쟁하였던 것을 알 수 있다.<sup>31)</sup>

또한, [표 4]의 영업세액을 살펴보면 龍岡組의 실적이 돋보이는데, 1934년도 전체 영업세액의 30%, 1936년도 전체 영업세액의 41%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1934년에는 屋代組, 慶北工業, 東洋企業의 세액 납부실적이 100원을 넘고 있었으나 1936년에는 屋代組, 坂野組의 납부실적은 대폭 증대하였으나 慶北工業, 東洋企業의 영업세액은 대폭 축소된 것을 살펴볼 수 있다.

27) 다만 龍岡組(合資)와 같이 후대에 자본금을 증액한 사례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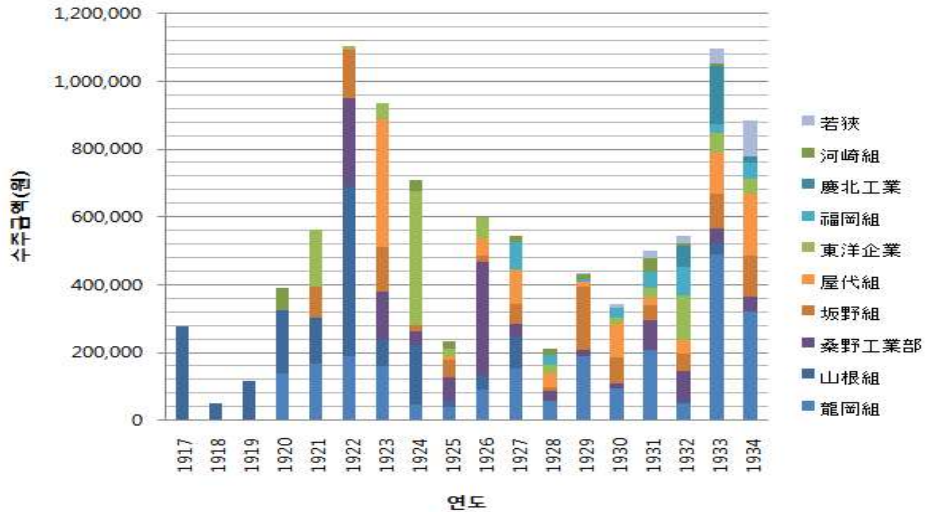
28) 이금도, 앞의 논문, 221쪽

29) 慶一銀行(株), 慶州電氣(株), 大八信託(株), 大邱無盡(株), 九龍浦電氣(株) 盈德電氣(株) 등에 투자하였으며 대구부의원을 지낸 실업가이다.

30) 大邱에 東亞興業株式會社가 設立되다. 慶北의 韓國人有志들이 40萬圓의 資本金으로 住宅經營·土地建物賣買·建築資料·燃料 등의 販賣를 目的으로 設立하다.(東亞日報 1937.11.3)

31) 여기에 개인의 자격으로 참여하던 청부업자가 있었음을 상기할 때 영세청부업자의 공사수주는 더욱 치열했던 것을 추정할 수 있다.





<그림 6> 주요 청부업자의 연도별 수주현황

[표 3] 1934년까지의 수주기록

청부업자	건수	수주금액(원)	비고
龍岡組	108	2,384,042	1920년~
山根組	39	1,722,087	1917년~
桑野工業部	83	1,203,819	1922년~
坂野組	45	1,106,372	1921년~
屋代組	35	1,057,369	1923년~
東洋企業	40	1,017,048	1921년~
福岡組	21	353,852	1927년~
慶北工業	32	252,270	1932년~
河崎組	11	221,932	1920년~
若狹	39	208,838	1929년~

※ 5,000원 이상의 공사 수주현황의 합  
(출처 : 朝鮮經濟日報社, 앞의 책, 365~382쪽)

(1) 龍岡組

대구부에서 활동하던 청부업자 중 가장 주목되는 것은 龍岡組이다. 龍岡組는 고문, 토목주임, 토목기술원, 건축주임, 건축기술원, 자동차맞기계係, 사무상담원, 현장대인 등 직원들의 업무가 세분화 되어 있었다. 수주기록도 토목공사지부와 건축공사지부로 각각 조사되었는

[표 4] 1934, 36년도 영업세 연액(원)

청부업자	1934년도	1936년도
龍岡組	310	629
屋代組	154	263
慶北工業	135	38
東洋企業	125	61
坂野組	65	299
河崎組	46	40
代行業	46	56
桑野工業部	44	78
中西組	36	30
福岡組	32	-
福田工務所	26	20
世良組	13	-

※영업세 10원 이상 납세 청부업자  
(출처 : 『大邱案内』, 『大邱商工人名簿』)

## 182 논문

데 토목공사지부는 53건 1,300,913원, 건축공사지부는 55건 1,175,089원의 계약을 성공하였다.

[표 5] 龍岡組 주요 공사계약현황

발주처	공사명	계약금	계약년
總督府	安東分監新築工事	64,200	1920
總督府	安東分監廳舍新築工事	74,300	1921
總督府	金泉分監新築工事	81,600	1921
土木部	西川橋架設工事	62,600	1922
專賣局	大邱專賣支局正門工事	54,100	1923
慶尙北道	大邱公女高普新築工事	84,800	1927
慶尙北道	商品陳列所新築工事	56,700	1928
蓮湖提水利	同組事業工事	52,005	1929
東亞土木	蔚山水利工事	58,000	1929
慶尙北道	江東橋架設工事	76,500	1931
西木組支店	滿洲國圖寧線鐵道工事	105,000	1933
慶尙北道	安東橋外改良工事	132,400	1933
總督府	大邱稅務監督局廳舍新築工事	70,500	1934
慶尙北道	安東附近堤防護岸災害復舊工事	74,000	19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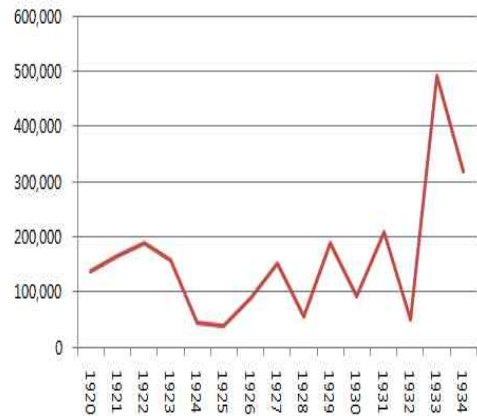
※ 계약금 50,000원 이상 공사  
(출처 : 朝鮮經濟日報社, 앞의 책, 367~371쪽)

1926년 건평 20~40평 사이의 주택건축비는 목조(갑등급)은 170원이었으며, 철근콘크리트조(갑등급)은 250원이었던 것<sup>32)</sup>과 비교하면 50,000원 이상의 공사비용은 대규모 공사였다. 1930년대 당시 1원의 법정평가가에 의하면 금 0.2돈과 같았으며<sup>33)</sup> 2010년 12월 현재로 환산하면 45,618원이다.<sup>34)</sup> 이를 기준으로 하면 龍岡

32) 정기철, 앞의 논문, 31쪽

組의 수주기록의 현재가치를 추정하면 토목공사지부 593억 정도이며 건축공사지부는 536억 정도였다.<sup>35)</sup>

이러한 龍岡組의 활약은 대구담합사건에 연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영향을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림 7> 용강조 연도별 계약금액

### (2) 坂野組

坂野組는 1921년부터 1934년까지 45건의 공사를 계약하였으며 총 계약금은 1,106,372원이었다. 1936년 영업세액 납입액이 1934년의 40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보아 더 많은 계약 실적을 쌓았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33) 화폐법(명치 30년 3월) 법률 제16호 제2조

34) 2010년 12월 4일자 금 한돈의 값은 228,090원이다.

35) 이러한 계산은 단순히 금 값을 기준을 한 것이나 당시의 소득수준이나 경제규모를 비교하면 더욱 현재가치가 높아질 것이다. 참고로 두부장수의 월평균소득은 10원, 신문기자는 50원, 의사는 75원, 변호사는 200원이었다. 이를 바탕으로 전봉관은 1원을 10만원으로 환산한 바 있다.(전봉관, 『황금광시대』, (주)살림출판사, 2005, 11쪽)

[표 6] 坂野組 주요 공사계약현황

발주처	공사명	계약금	계약일
慶尙北道	尙州農蠶學校校舍 其他新築工事	64,690	1922.8
慶尙北道	大邱公立師範學校 新築工事	67,300	1923.7
總督府	大邱專賣局官舍 其他新築工事	62,440	1923.10
慶尙北道	忠州盈德間二等道路 改修工事	67,865	1930.4
慶尙北道	二等道路榮州蔚珍線 改修工事	64,100	1929.10

※ 계약금 50,000원 이상 공사  
(출처 : 朝鮮經濟日報社, 앞의 책, 364~366쪽)

(3) 屋代組

屋代組는 1923년부터 1934년까지 35건의 공사를 계약하였으며 총 계약금은 1,057,369 원이었다. 1936년 영업세액 납입액이 1934년의 70% 정도 증가하였다.

[표 7] 屋代組 주요 공사계약현황

발주처	공사명	계약금	계약일
總督府	大邱覆審法院廳舍 新築工事	212,640	1923.1
慶尙北道	大邱公立農學校舍 新築工事	83,880	1923.3
慶尙北道	道立原蠶種製造所廳舍 其他工事	52,400	1923.10
慶尙北道	道立醫學講習所 建築整備工事	106,470	1933.10
慶尙北道	安東農林學校 建築整備工事	107,700	1934.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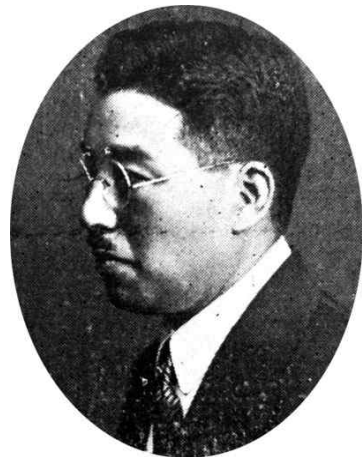
※ 계약금 50,000원 이상 공사  
(출처 : 朝鮮經濟日報社, 앞의 책, 375~377쪽)

4. 전문기술인 및 조선인의 활약

4-1. 전문 기술인의 활약

대구에서 활동하던 청부업자들은 대부분 그 이력이 알려져 있지 않다. 다만 단편적인 자료를 통해 관련 학과를 전공하거나 일본, 서울 등의 유력한 청부업자에 소속되어 활동하다 독립하여 대구에 정착한 전문 기술인으로 분류할 수 있는 집단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森西平三郎(1891년생)은 본적은 福岡縣이며 東京攻玉社工學校 토목과를 졸업하고 철도국에 근무하다 1921년 퇴직하여 龍岡組를 설립하였으며 경상남북도청, 부청, 철도국, 체신국, 전매국, 기타 일반관청의 지정청부인으로 활동하였다.<sup>36)</sup>



<그림 8> 森西平三郎  
(출처 : 達捨藏, 앞의 책, 446쪽)

三島辰二(1880년생)는 東京鐵道學校 建設科를 졸업하고 1903년 조선으로 건너와 京釜鐵道會社 技手, 統監府 鐵道技師로 근무하였다. 1909년 10월에는 東京有馬組 朝鮮出張所의 主任으로 근무하였으며<sup>37)</sup> 1925년 京城에서

36) 民衆時論社朝鮮功勞者銘鑑刊行會, 『朝鮮功勞者銘鑑』, 1935, 530~531쪽

三洲社(合資)를 설립하였고 1935년 대구로 이전하였다.

藤本福右衛門(1882년생)은 출신학교는 알 수 없으나 1912년 경성 宮川組에 들어가 주로 건축방면을 담당하였으며 1921년 대구복심법원 신축공사에 참여하였고 이후 宮川組 대구 지점 주임으로 활약하며 대구농림학교, 전매지국 등 많은 공사에 참여하였으며 1930년 독립하여 屋代組를 조직하였다.<sup>37)</sup>

樫間六은 본적은 愛知縣이며 1909년 조선으로 건너와 청부업을 개업하였고, 1921년 변경하여 坂野組(合名)를 설립, 각 관청의 지정 청부인으로 활동하였다.<sup>39)40)</sup>

#### 4-2. 조선인의 활약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조선인 중 청부업자로 활동한 사람은 많지 않다.<sup>41)</sup> 다만, 1934년 龍岡組(合資)에는 사무상담원에 尹濟圭, 金溶禹, 金炳夏, 尹炳化가 근무하고 있었으며, 현장대인으로 魯炯基가 근무했던 기록이 있으나 세세한 활약상은 알 수 없다.<sup>42)</sup> 또한 朱益魯(大倉組)와 李潤碩(戶田組)가 있었으며 개인 청부업자로 許壽岩이 있었던 기록이 있다.<sup>43)</sup>

다만, 특기할 사항으로 개인청부업자로 활동

37) 朝鮮公論社, 『在朝鮮內地人 紳士明鑑』, 1917, 500쪽

38) 民衆時論社朝鮮功勞者銘鑑刊行會, 앞의 책, 728쪽

39) 民衆時論社朝鮮功勞者銘鑑刊行會, 위의 책, 410쪽

40) 樫間六의 동생인 樫勝義도 坂野組에 함께 근무했는데 김정동은 그를 한국인으로 분류하였으나 이는 誤記이다.

41) 건설업자는 청부업자로 도카타(土方)로 부르며 사회적 이미지가 좋지 않아 한국인이 많이 활동하지 않았다.(대구시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716쪽)

42) 朝鮮經濟日報社, 앞의 책, 359쪽

43) 李成海(중앙건축대표)의 증인(대구시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716쪽), 朱益魯와 李潤碩는 해방 후 대구에서 삼화토목 합자회사를 설립하는데 참여하였다.(대구시사편찬위원회, 위의 책, 721쪽)

하던 李永實<sup>44)</sup>이 있었는데 그는 서성정 1번지에 주소지를 두었으며, 공사 수주이력은 알 수 없으나 1934년에는 39원<sup>45)</sup>, 1936년 89원<sup>46)</sup>의 영업세를 납입한 기록이 있다. 이는 桑野工業部(合資)와 비슷한 수준으로 활동사항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sup>47)</sup>

## 5. 결론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경부선 속성건설로 인해 대구에 정착하게 된 건축청부업자는 대구의 개인, 개인경영조직의 형태로 활동하다 1922년도의 계약방법 변화와 1932년의 대구담합사건을 거치면서 점차 근대적 기업으로 조직을 변경하였으며 그 숫자도 계속적으로 증가하였다.

대부분의 청부업자는 일본인이었으며 합자회사의 형태로 조직하였다. 설립당시 자본금은 평균 30,000원 정도였으며 50,000원을 넘지 않았다. 가장 활발한 수주이력과 영업세액을 보여준 대표적인 청부업자로는 龍岡組(合資)와 함께 坂野組(合名), 屋代組(合資) 등이 있었다.

이에 반해 조선인의 활약은 미비하였다. 三共商會(合資), 東亞興業(株), 殖産興業(株)가 조선인에 의해 설립되었으나 토목건축청부업이 주된 업무가 아니었다. 일부가 일본인 청부업자의 직원으로 근무하였으나 현장대인 1인을 제외하면 상당역할을 하였다. 다만 李永實이 개인의 형태로 활약하며 중견 청부업체의 영업세를 납부하고 있어 조선인의 청부업자의 명맥

44) 1920년 발간된 『最近大邱要覽附商工人名簿』에는 이름이 나오지 않는다.

45) 中濱究·山重雄三郎, 앞의 책, 附商工人名錄 16쪽

46) 大邱商工會議所, 『大邱商工人名簿』, 1936, 37쪽

47) 李永實과 관련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을 이어주었다.

해방과 함께 이들 청부업자는 모두 사라졌으나 龍岡組(合資)와 함께 坂野組(合名), 屋代組(合資) 각각 한국인에게 인수되어 해방 후 대구건축계를 이끌었다.

<참고문헌>

1. 朝鮮新聞社, 『鮮南發展史』, 1913
2. 朝鮮公論社, 『在朝鮮內地人 紳士明鑑』, 1917
3. 大邱商業會議所, 『最近大邱要覽』, 1920
4. 朝鮮建築會, 「朝鮮と建築」, 제4집 제12호, 1925
5. 中村資良, 『朝鮮銀行會社組合要錄』, 東亞經濟時報社, 1921, 1923, 1925, 1927, 1929, 1931, 1933, 1936, 1939, 1940, 1942
6. 中濱究·山重雄三郎, 『大邱案内』, 麗朗社, 1934
7. 朝鮮經濟日報社, 『昭和10年 朝鮮請負年鑑』, 1935
8. 民衆時論社朝鮮功勞者銘鑑刊行會, 『朝鮮功勞者銘鑑』, 1935
9. 達捨藏, 『慶北大鑑』, 1936
10. 大邱商工會議所, 『大邱商工人名簿』, 1936
11. 大邱府, 『大邱府史』, 1943
12. 朝鮮銀行調查部, 『經濟年鑑』, 1949
13. 대구시사편찬위원회, 『대구시사』, 제3권, 대구광역시, 1995
14. 김태중, 「구한말 탁지부건축소의 조직과 사업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2
15. 정기철, 「1876년부터 1948년까지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본 한국의 건축활동의 성격과 그 영향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8
16. 김란기, 「한국 근대화과정의 건축제도와 장인활동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9
17. 김정동, 『일제하 우리 건설업 분야의 상황에 관한 소고』, 건축·도시환경연구 제3집, 목원대학교 건축·도시연구센터, 1995
18. 이금도, 「조선총독부 건축기구의 건축사업과 일본인 청부업자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7
19. 장지용·정이근, 『식민지기 부산지역 회사 자료의 정리와 분석』, 한국민족문화 36, 부산대학교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10
20. 전봉관, 『황금광시대』, (주)살림출판사, 2005
21. <http://gb.nl.go.kr> (조선총독부 관보활용 시스템)

접수(2010. 10. 15)  
수정(1차: 2010. 12. 5)  
게재확정(2010. 12. 20)

# A Study on Construction Contractors in Daegu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Rule

Lee, Jin-Hyun

(Daegu Metropolitan City Government)

## Abstract

This article is about the study on construction contractors in Daegu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Rule. The first construction contractors who involved with Kyong-bu railroad work in 1904 personally. But, after they go through the bidding method, changed by the Japanese Government General of Korea in 1922, and the second bid rigging in 1932, contractors was changed gradually the organization into unlimited partnership, limited partnership or stock corporation. The number of them was increased. Most contractors were Japanese, and organized a limited partnership which has been capitalized at 30,000 won. On the other hand, Korean contractors couldn't work at an important part, except for the personal activities of Youngsil Lee(李永實). They were usually employed as consultants or field deputies by Japanese contractors. After the Liberation, Japanese construction contractors returned to Japan, however Tatuoka-kumi(龍岡組), Yasiro-kumi(屋代組) and Sakano-kumi(坂野組) that was leading the business which were took over by Koreans. They were leading architecture field in Daegu.

---

Keywords: Daegu, Contractor, Japanese Colonial Rule, Modern Architecture

---